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이 직업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애경* · 김지심** · 김정화***,†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미디어과

**한국생산성본부 자격개발인증본부

***한국금융연수원 u-러닝부

The Effects of Mastery Goal Orientation and Time Management Ability on Job Search Self-Efficacy in the Vocational Education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Ae-Kyung Chung* · Ji-Sim Kim** · Jeong-Hwa Kim***,†

*Department of Digital Broadcasting and Media, Dong Seoul College

**Qualifications Development & Accreditation Division, Korea Productivity Center

***u-Learning Department, Korea Banking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mastery goal orientation and time management ability on job search self-efficacy in the vocational education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52 samples were analyzed for this research. The result indicated that mastery goal orient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all sub-variables (job ability self-efficacy, career goal setting self-efficacy) of job search self-efficacy significantly. But time management ability had positive effects on career goal setting self-efficacy. An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comparison of mastery goal orientation, time management ability, and job search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der and residence area. In addition, the interview results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career, the understanding of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search self-efficacy were analyzed.

Keywords: Mastery Goal Orientation, Time Management Ability, Job Search Self-Efficacy, Vocational Education

1. 서 론

대학시절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이원령, 이한우, 2008), 직업선택은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결정 중의 하나이다(이현림 외, 2007).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취업기회 감소로 인해 대학생들의 직업결정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고용흡수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청년실업은 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고민

과 스트레스는 직업탐색에 대한 전반적인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류재우, 2004).

또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거나 이공계 선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언 외, 2004).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불안한 고용형태와 낮은 취업 기회였다. 결과적으로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관성이 이처럼 높아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사회는 점점 대학에서 보다 정교한 진로지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또한 진로지도를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문 인력과 타당한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비율 또한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임언 외, 2004).

이처럼 여러 사회적 요인 및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에 의해

Received September 6, 2011; Revised April 9, 2012

Accepted April 17, 2012

† Corresponding Author: hole20@hanmail.net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탐색효능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탐색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탐색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직업탐색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이공계 전문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가지는 숙달목적지향성과 대학생활에서의 시간관리능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탐색에 있어 전공에 대한 숙달목적지향성은 매우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낮고 전공 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경우, 직업탐색에 대한 자신감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숙달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시간관리능력은 직업탐색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취업 이후의 직장생활 등 전 생애 모든 활동에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공계 전문대학생이 취업과 무관한 대학생활을 보내거나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못해 취업준비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임언 외, 2004).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체계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직업탐색에 대한 효능감 또한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정한 이들 변인의 예측력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Fig. 1 참조)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이 직업탐색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역량효능감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이 직업탐색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을 예측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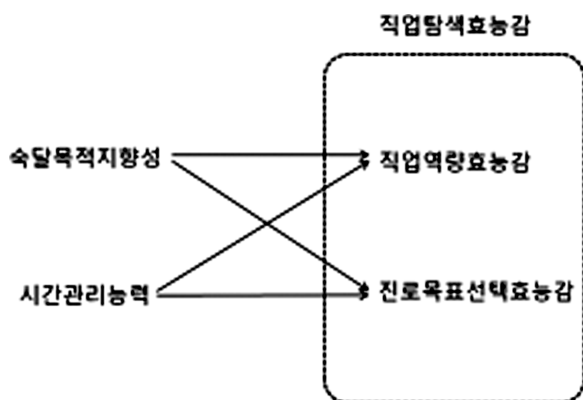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현재까지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직업탐색효능감 향상을 위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만큼, 이와 같은 연구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또는 훈련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숙달목적지향성

숙달목적지향성은 동기 이론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숙달목표(mastery goal)와 수행목표(performance goal) 유형으로 구분되는 성취목적지향성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Ames & Archer, 1987), 일반적으로 성취목표는 어떤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어떤 활동에서 자신의 유능감을 보여주거나 증진시키려는 바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Ames, 1992).

이 중에서도 숙달목표 즉, 숙달목적지향성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내재적 가치와 노력을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mes & Archer, 1987; Elliot, McGregor, & Gable, 1999; Elliott & Dweck, 1988).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진 학습자들은 자신의 유능함을 개발 또는 발전시키거나 과제를 숙달하기 위해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효과적인 자기 조절학습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과제에 대한 높은 집중력과 지속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진 학습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능력을 고정된 실재가 아닌 변화하는 것으로 믿는 ‘능력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다(Dweck & Leggett, 1988). 즉,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도 전략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러한 믿음은 결과적으로 숙달목적지향적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학습기회, 기능의 습득을 지향하고, 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능력 향상과 숙달의 느낌을 획득하고자 하는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숙달목적지향적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는 대신 기능의 획득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도전했던 과제의 실패 후에도 과제를 지속하며 과제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Dweck, 1986).

2. 시간관리능력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물리적 자원 중의 하나인 시간은 삶의 질이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결정적이며, 우리의 삶

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개인의 관리능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즉, '시간 관리능력'이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계획된 절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과 환경을 조정하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나아가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인간의 인지적인 자기관리전략 능력으로 볼 수 있다(Seiwert, 2003).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나 이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생활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업이나 취업성취를 위해서는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투자하는 총 시간이 어느 정도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인생의 목표달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간관리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들(김외숙, 2003; 박동혁, 이민규, 신희천, 2006; 이주희, 박순희, 2008; Britton & Tesser, 1991; Feather & Bond, 1983)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시간관리가 인간발달의 대부분의 단계에서 필요하지만, 시간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대학생의 경우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윤용옥, 김외숙, 2007).

또한 대학생들은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주인공으로서 자아개발, 진로 및 취업, 생활방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삶의 목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으며, 학업과 생활이라는 과제 모두에 대한 성공적인 성취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마찬가지로 대 학생들은 자아를 개발하고 진로 및 취업을 결정하는 시기로, 대학생은 자신의 생활과 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업, 진로, 취업 성취를 높일 필요가 있다.

시간관리는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특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Seiwert, 2003), 시간관리 과정은 목표설정단계, 계획단계, 의사결정단계, 실행 및 조직화 단계, 통제단계, 정보와 의사소통단계 등 여섯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중 목표설정단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단계로, 목표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예정일 등을 정해 놓는 시간관리의 기본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대한 목표설정은 이들의 시간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직업탐색효능감

대학생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이원령, 이한우, 2008), 진로 선택은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결정 중의 하나이다(이현림 외, 2007). 진로 선택은 진로발달이론에 근거하며, 자기 및 진로에 대한 인식과 탐색, 현실 검증, 계획과 선택 등 진로발달의 여러 측면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기와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이현림, 김지영, 2001). 또한 직업탐색효능감이 높을수록 다양한 매체 활용의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을 더 잘 느끼기 때문에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것이다(정애경 외, 2011).

이처럼 개인의 직업선택 또는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olberg et al., 1994; 최정인, 박미진, 유계식, 2001). 이는 자기 효능감이 성취 행동, 학문적 또는 진로와 관련된 결정,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Hackett & Betz, 1981).

예를 들어,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을 하는데 유용하다고 논의하고 있다(Taylor & Betz, 1983).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스스로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개인적 확신성 정도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진로 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Hackett & Betz, 1981) 또는 직업탐색효능감(박은선, 이재창, 2009)으로 논의되는데, 주로 자신의 직업의 사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스스로 완수할 수 있다는 신념 또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Mazurrek & Shoemaker, 1997). 또한 이현주(2000)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탐색효능감을 직업탐색 과정에서 취업을 위한 자신의 능력과 목표를 인지하는 효능감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경제·비경제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진로' 대신 경제 활동을 지향하는 '직업'을 전제로 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성취하고자 하는 진로목표의 선택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김수원, 윤지은, 2009).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업탐색효능감을 ‘직업역량효능감’과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이라는 하위요인으로 다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직업역량효능감’이란 전공지식이나 사회경험 등 대학생 스스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효능감 수준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이란 성취하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대해 인식하는 효능감 수준을 의미한다.

한편, 직업탐색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탐색효능감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과 능력을 잘 이해하여 다양한 범위의 직업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선, 이재창, 2009). 또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낮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기피할 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꺼리게 만들 수 있다(조규판, 주희진, 2009).

4. 숙달목적지향성과 직업탐색효능감

현재까지 숙달목적지향성과 직업탐색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숙달목적지향성과 취업성취 및 전략, 자아효능감, 학업성취, 희망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취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신념은 성취 목적과 관련된 성향을 가지게 한다(Ames, 1992). 예를 들어, 대학의 직업교육에서 학생들이 숙달 목적을 가지게 되면 과제의 숙달이나 능력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 이는 학습 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과제의 숙달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표지향성을 갖게 한다(이주화, 김아영, 2005). 둘째, 숙달목적지향성을 지닌 학습자들은 효과적인 취업 전략을 사용하며, 자아효능감 또한 높게 나타난다(Pintrich, 2000). 셋째, Dweck과 Legget(1988)에 의하면,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학습뿐만 아니라 취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넷째, 목표선택과 학업수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단연구를 한 Harackiewicz 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숙달목적지향성은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성취목적지향성과 희망의 관계를 살펴본 Snyder(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숙달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희망을 통해서 숙달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한 희망은 목표도달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숙달목적지향성이 취업성취나 취업전략,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업탐색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5. 시간관리능력과 직업탐색효능감

기존 연구를 보면, 학업성취와 시간관리전략이 매우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는 많으나(전명남, 2003), 대학생의 시간관리 능력이 직업탐색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시간관리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직업탐색효능감과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만큼(Bandura, 1986),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예상한 대로 이끌어 나가는 학습자의 시간관리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Britton과 Tesser(1991)은 자신의 시간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오현진과 정지윤(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시간관리 능력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시간관리를 잘하는 초등학생들이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양명희(2000)는 시간관리가 자아효능감 및 목적설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넷째, 시간관리능력은 인지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만족도, 자아효능감과 같은 정서적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Macan et al, 1990). 이 연구에서는 시간관리능력이 높은 대학생들이 낮은 대학생들 보다 자신의 수행을 높게 평가했으며, 자신의 학습과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시간관리능력이 자기효능감이나 목적설정,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업탐색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은 직업탐색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역량효능감을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은 직업탐색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을 예측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가 직업탐색효능감을 예측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D대학에서 2010년도 2학기에 진로와 직업 수업을 듣는 이공계 계열 2학년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 수업의 목표는 이공계 학생들이 취업능력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취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설문은 54개 모두 회수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 응답자 2명을 제외한 52명의 설문만 최종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후 본 과정을 수강하면서 숙달목적지향성, 시간관리, 직업탐색효능감에 대해 학습자들이 인식한 수준과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이용하여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피면담자의 양해 하에 녹음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연구 대상의 남녀비율은 각각 32.7%(17명)와 67.3%(35명)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중 15.4%(8명)만 직장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84.6%(44)는 직장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2.3%(22명)는 서울이 거주자인 반면 57.7%(30명)는 경기도·인천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숙달목적지향성, 시간관리능력, 직업탐색효능감을 측정하는 3개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된 전체 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7로 양호하였다.

가. 숙달목적지향성

숙달목적지향성에 대한 도구는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학습 측정 도구 중 동기조절의 숙달목적지향 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초 7개 문항이 사용되었으나,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문항 수는 3개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37이다.

나. 시간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에 대한 도구 또한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학습 측정 도구 중 행동조절의 시간관리 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초 5개 문항이 사용되었으나,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문항 수는 3개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5이다.

다. 직업탐색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탐색효능감은 하위 변인인 직업역량

효능감과 진로목표선택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도구는 각각 박은선과 이재창(2009)이 수정한 진로탐색 자기효능감(Solberg et al., 1994) 도구의 하위요인인 개인 및 직업탐색효능감 요인과 이은경(2000)이 수정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Taylor & Betz, 1983) 도구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 요인에서 각각 3문항씩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최초 총 6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나,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문항 수는 직업역량효능감 2문항, 진로목표선택효능감 2문항으로 총 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679와 .782였으며, 전체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11이다.

또한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는 진로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어려운 점, 진로와 직업 과정을 수강하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것에 대한 성찰, 숙달목표 달성 측면에서 학습내용의 이해나 과제수행에 대한 인식, 시간관리 행태, 학생들의 직업탐색효능감의 특징을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5.0이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이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중 직업역량효능감과 시간관리능력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최소 $r = .32$ 에서 최대 $r = .37$ 로 유의한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문제 또한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한 이후,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스텝와이즈법(stepwise method)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 결과는 작성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각 응답별로 피면담자의 공통된 응답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 정리하였다. 이후 교육공학 박사 1인이 분석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초자료 분석결과

변인들의 평균은 최저 2.85에서 최고 3.98, 표준편차는 최소 .72에서 최대 1.07, 왜도는 절대값 최소 .07에서 최대 1.07, 첨

도는 절대값 최소 .06에서 최대 1.68로 나타남으로써 분석을 위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직업역량효능감은 평균 3.44, 진로목표선택 효능감은 평균 3.39, 숙달목적지향성은 평균 3.60, 시간관리는 평균 3.13으로 숙달목적지향성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시간관리에 대한 평균값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숙달목적지향성 및 시간관리능력의 직업역량효능감 예측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이 개인의 직업역량효능감을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숙달목적지향성이 직업역량효능감을 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65, p < .05$). 이는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직업역량효능감도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시간관리 능력은 직업역량효능감을 설명하는 예측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직업역량효능감과 시간관리능력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이공계 대학생의 시간관리능력이 직업역량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숙달목적지향성 및 시간관리능력의 진로목표선택 효능감 예측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이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을 예

Table 1 Multi-regression result of mastery goal orientation, time management ability on job ability self-efficacy (n = 52)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p
	B	표준오차			
숙달목적지향	.27	.11	.32*	2.37	.02
(상수)	2.47	.42		5.87	

$R^2(\text{adj. } R^2) = .10(.08), F = 5.64, p = .02$

$p < .05$

Table 2 Multi-regression result of mastery goal orientation, time management ability on career goal setting self-efficacy (n = 52)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p
	B	표준오차			
숙달목적지향	.26	.12	.28*	2.09	.04
시간관리능력	.22	.11	.27*	2.02	.05
(상수)	1.79	.47		3.83	

$R^2(\text{adj. } R^2) = .21(.17), F = 6.33, p = .00$

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와 마찬가지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이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을 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6.33, p.05$). 이는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목표선택효능감도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진로목표선택효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면, 숙달목적지향성($\beta = .28, p < .05$)이 시간관리능력($\beta = .27, p < .05$)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상대적 차이가 거의 없어 두 독립변수들이 비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집단 차이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직업역량효능감, 진로목표선택효능감, 숙달목적지향성, 시간관리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직업역량효능감, 숙달목적지향성 측면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진로목표선택효능감과 시간관리능력 측면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t-Test 검증 결과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숙달목적지향성의 평균이 가장 높고, 시간관리능력의 평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직업역량효능감, 진로목표선택효능감, 숙달목적지향성, 시간관리능력 모든 측면에서 경기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역시 t-Test 검증 결과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숙달목적지향성의 평균이 가장 높고, 시간관리능력의 평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 comparison of measurement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n = 52)

구분	직업역량 효능감	진로목표선택 효능감	숙달목적 지향성	시간관리 능력
남 (n = 17)	3.50	3.35	3.75	2.96
여 (n = 35)	3.41	3.41	3.52	3.21

Table 4 Mean comparison of measurement variables according to residence area (n = 52)

구분	직업역량 효능감	진로목표선택 효능감	숙달목적 지향성	시간관리 능력
서울 (n = 22)	3.25	3.25	3.52	3.05
경기 (n = 30)	3.58	3.50	3.66	3.19

5. 심층인터뷰 결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하여 진로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어려운 점, 진로와 직업 과정을 수강하면서 배운 것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학생들의 숙달목표 달성, 시간관리, 직업탐색효능감의 측면에서 인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우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 여전히 막연하게 인식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인으로 성장하였으나, 청소년기에 진로나 직업세계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여 여전히 직업세계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저는 아직도 진로에 대해 확실한 길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많다고 하면 많은 나이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직업에 대하여 고민하고 정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과제 때문에 직업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꿈은 CEO 여도 CEO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CEO가 되면 인생을 편하게 쉽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꿈을 키워왔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CEO가 이렇게 힘든 직업인지 몰랐으며 이렇게 직접 CEO의 하루를 보니깐 난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숙달목표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식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진로와 직업 과정을 수강하면서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명확히 배울 수 있어 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던 직업세계나 재직자의 역할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숙달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요새 크게 확산되어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해 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기 위해 정보를 찾으면서 확실한 개념을 알게 되어서 뿌듯했어요.”

“CEO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생각한 CEO는 답답하고 딱딱한 스타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000 대표를 보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세 가지 성공비법을 통해 나의 잘못된 습관 등을 되돌아보게 되고 특히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동감했었던 것 같아요.”

다. 시간관리 행태

한 학생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여 학습하였는지 보여주었다.

“과제를 하기 위해 한국직업방송에서 관련된 것을 찾았어요. 우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찾을 때에는 짬짬이 방송을 보면서 다시 보아야 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겨찾기 해 놓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략이나 비결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했을 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찍 일어나는 아침 시간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한 IT기업을 운영 중인 CEO인 000 대표가 26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서 저는 그 비결을 알기 위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라. 직업탐색효능감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식

한편, 일부 학생들은 직업탐색효능감의 측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이 타인의 인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곧 3학년 취업반이 되는 나로서는 직업에 대해 다시 자세히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직업의 세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업관이나 직업을 갖는 마인드에 대한 확신을 얻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부모님의 말처럼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 거기다가 돈까지 잘 버는 일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남은 것은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겠지요...”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조사하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능력이 직업탐색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역량효능감과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을 예측하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은 직업역량효능감과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을 모두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전문지식을 습

득하는 대학생들일수록 자신의 직업역량과 진로목표선택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층인터뷰에서도 비슷하게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요인별 수준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탐색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성취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계획된 목표에 따라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수업이나 프로그램과 달리 직업교육은 본인의 현재나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교육 내용을 더 많이 다루게 되므로, 학생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잘못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시간관리능력은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을 예측하지만, 직업역량효능감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관리의 목표가 목적의식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시간관리를 잘하는 대학생들은 취업과 관련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시간관리능력이 자신의 직업역량 효능감과 상관이 없다고 나타난 점은 시간관리가 직업탐색 역량 향상과 관련된 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성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숙달목적지향성, 시간관리능력, 직업역량효능감과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평균을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시간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박경애와 김택호(1994)의 연구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직업교육에서 숙달목적지향성의 평균은 높은 편이나, 시간관리능력의 평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계획이나 목표는 잘 세우나, 행동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공계 전문대학생들이 높은 숙달목적지향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성이 시간관리와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간관리의 목표가 목적의식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공계 전문대학생들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대학의 시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윤용옥, 김외숙, 2007; 이주희, 박순희, 2008).

결과적으로 직업 관련 수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업탐색효능감의 수준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대학생 스

스로 시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 및 이에 따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표본수가 적고, 대상자가 서울·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숙달목표와 수준에 맞는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한 후에 대학생들의 시간관리능력 향상과 직업탐색효능감이 높아졌는지 사후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에서 이공계 대학생이 가지는 숙달목적지향성과 시간관리가 직업탐색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 이공계 남녀 대학생 5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탐색효능감, 숙달목적지향, 시간관리를 검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첫째, 숙달목적지향성은 직업역량효능감과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을 모두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관리능력은 진로목표선택효능감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성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숙달목적지향성, 시간관리능력, 직업역량효능감과 진로목표선택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공계 전문대학생의 숙달목적지향성의 평균은 높은 편이나, 시간관리능력의 평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김수원·윤지은(2009). 전문대학생의 직업탐색활동이 구직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5(1): 1-24.
2. 김외숙(2003).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0.
3. 류재우(2004). 과학기술 인력의 노동시장 성과 및 근래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27(1): 107-134.
4. 박경애·김택호(1994). **청소년시간 및 정신에너지관리: 기초연구**. 청소년상담연구(총서).
5. 박동혁·이민규·신희천(2006). 대학생 시간관리 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01-816.
6. 박은선·이재창(2009).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947-965.

7. 양명희(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오현진·정지윤(2006). 초등학생의 시간관리 능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3): 101-112.
9. 윤용옥·김외숙(2007). 대학생의 시간관리: 관련 변수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71-82.
10. 이원령·이한우(2008). 예비특수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에 관한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4(3): 123-142.
11.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이주화·김아영(2005).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19(1): 311-325.
13. 이주희·박순희(2008). 대학생의 시간 관리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2): 91-120.
14. 이현림, 손종하, 김성자, 김순미(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사결정 유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6(1): 46-62.
15. 이현림·김지영(2001). 진로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2(2): 211-230.
16. 이현주(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38(1): 235-257.
17. 임언·이지연·윤형찬(2004).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 전명남(2003).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수행 분석. **교육심리연구**, 17(4): 1-28.
19. 정애경·김지심·민경일·홍유나·김혜선(2011).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직업탐색효능감과 직업방송의 유용성, 용이성이 시청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73-89.
20. 조규관·주희진(2009).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273-291.
21. 최정인·박미진·유계식(2001).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관계. **진로교육연구**, 13: 257-275.
22. Ames, C., & Archer, J.(1987). Mothers' belief about the role of ability and effort in school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 409-414.
23. Ames, C.(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24.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5. Britton, B. K., & Tesser, A.(1991). Effects of time management practices on college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405-410.
26. Dweck, C. S.(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27. Dweck, C. S., & Leggett, E. L.(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28. Elliott, E. S., & Dweck, C. S.(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12.
29. Elliot, A. J., McGregor, H. A., & Gable, S. L.(1999). Achievement goals, study strategies, and exam performance: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549-563.
30. Feather, N. T., & Bond, M. J.(1983). Time structure and purposeful activity among employed and unemployed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6: 241-254.
31.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32. Hackett, G., & Betz, N.(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9.
33. Harackiewicz, J. M., Barron, K. E., Tauer, J. M., & Elliot, A. J.(2002). Predicting success in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of achievement goals and ability measures as predictors of interest and performance from freshman year through gradu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562-575.
34. Macan, T. H., Shahani, L., Dipboye, R. L., & Phillips, A. E.(1990). College students' time management: Cor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str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760-768.
35. Mazurek, N., & Shoemaker, A.(1997).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12 708).
36. Pintrich, P. R. (200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SD: Academic Press.
37.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38. Seiwert, L. J.(2003).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시간관리 테크닉**. 서울: 미래사.
39. Solberg, V. S., Good, G. E., Nord, D., Holm, C., Hohner, R., Zima, N., Heffernan, M., & Malen, A.(1994). Assessing career search expectation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Search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 111-123.

40.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정애경 (Chung, Ae-kyung)

1982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졸업
1984년: 동 대학원 기독교학과 석사
199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컴퓨터교육학과 석사
2008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
현재: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미디어과

관심분야: 이러닝 및 모바일 학습환경 설계

Phone: 031-720-2179

Fax: 031-720-2294

E-mail: cakyung@du.ac.kr



김지심 (Kim, Ji-sim)

1997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졸업
2001년: 동 대학원 컴퓨터학과 석사
2009년: 동 대학원 교육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자격개발인증 본부 IT역량지수 개발팀

관심분야: 이러닝, 공학교육, 직업교육

Phone: 02-724-1850

Fax: 02-398-4320

E-mail: jisim.kim@hanmail.net



김정화 (Kim, Jeong-hwa)

2000년: 국민대학교 전산과학과 졸업
2002년: 동 대학원 전산과학과 석사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금융연수원 u-러닝부

관심분야: u-러닝, 지능형교육시스템

Phone: 02-3700-1535

Fax: 02-3700-1610

E-mail: hole20@hanmail.net